임실군 섬진강길

전국 최고 걷기명소 거듭

문광부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선정… 먹거리 · 체험거리 등 프로그램 연계

수려한 자연경관이 으뜸인 임실군 섬진강 길이 전국 최고의 걷기 명소로 거듭난다.

임실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걷기여행길 공모사업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2017년 여행주간을 맞아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 등 지역의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됐다. 단순히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도보여행 구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섬진강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한 걷기코스로 김용택 시인이 거주하는 진뫼마을에서 천담마을을 거쳐 구담마을까지 이어지며 섬진강 걷기의 백미로 알려진 7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길은 김용택 시인이 '눈꼽 만큼도 지루하지 않은 길' 이라 평가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미 넘치는 강변길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섬진강 길 걷기에 앞서 선착순 200명에 한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필봉농악 전통문화 체험과 사물놀이, 국악공연, 퓨전 창작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임실군 대표 특산품인 임실N치즈 판매 및 마을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농산물로 만든 시골 맛 물씬 풍기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실군 문화관광치즈과 이남재 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김용택시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섬진강길을 전국 최고의 걷기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택시인과 함께하는 섬진강 길 도보여행은 5월 13일(토)에 개최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강진면 '전통예술원 두레'

전북도 사회적기업 공모 사업 선정

임실군 강진면 (사)전통예술원 두레(대표 청정영)가 전북도 제1차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사회적 기업 효력이 유지되며 개별 공모사업을 통해 인건비, 각종 사업개발비 등을 2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전통예술원 두레는 지난 2004년 마을공동체 복원 및 전통문화 전승 및 보급을 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특성화된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경제·문화적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필봉농악전수관과 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자립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일원의 역량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통예술원 두레는 지난달 24일 공모사업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전북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에 신규 지정됐으며 오는 11일 전라북도지사의 지정서를 받을 예정이다.

/임실=진홍영기자

순창군, 2030 젊은 농업인 경쟁력 강화한다

6월 16일까지 젊은 농부 20명 대상 비즈니스모델 구축 교육 진행

순창군이 2030 젊은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30대 젊은 농업인 20여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총 12회 정도 진행될 계획이며 20~30대 젊은 농업인들을 발굴하고 차세대 영농 전문 경영인들을 육성해 각 읍면 농촌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고객관리, 내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홍보 마케팅 전략, 전문 농업인 농장 현장실습, 비즈니스 모델 캠버스 작성 및 발표까지 젊은 농업인이 비즈니스 발굴부터 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6월 16일까지 상반기 교육을 끝내면 하반기에는 현장 실습이 강화된 심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순창군의 젊은 농업경영인 조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해 정보교류와 서로 간의 Feedback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교육생들 중에 최근 5년 이내 귀농 귀촌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지역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보람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전라북도 '삼락농정'을 선도할 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 문제는 농촌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면서 "20~30대 젊은층 들이 농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또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교육이외에도 농업농촌혁신대학 운영,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운영, 수요자 맞춤형 전문농업 교육, 순창지역 학습단체 육성 등을 통해 농업변화를 선도할 인재육성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본격 시행

임실군이 건축법 개정 및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감경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에게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경우 현행 이행강제금에 100분의60 비율로 낮춰 부과한다.

무허가 축사농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50 비율을 추가 감경 받는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1년에 1회로 한정하고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부과 횟수를 총 3회로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소규모 주택의 위반 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조속히 이뤄져 축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금풍외 16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금풍외 16지구 6.4km에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대형화 및 현대화로 경작로 확·포장은 농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자 애로사항이며,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시행함으로써 대형 농기계의 왕래가 원활하게 되고 기계화 영농기반이 구축되어 농작업의 능률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발주되는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오는 13일 개찰을 실시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착공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지사는 전년도까지 관리구역 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총사업비 661억원 투입, 546km 포장 완료하였다.

올 사업이 완료되면 총 계획연장 582km 중 552km가 완료돼 95%의 포장률을 갖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힐링교육센터 정위치유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치유하는 '순창힐링교육센터'를 지난 5일부터 본격 운영해 힐링순창 알리기에 나섰다.

순창힐링교육센터는 인계면 쌍암리에 위치한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총 5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진행이 4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12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10회 정도 운영한다.

힐링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정위치유 과정이다.

정위(定位)치유란, 바른 자세를 만들어가면서 통증을 완화해가는 방법이다. 특히, 비뚤어진 자세로 인해 생길수 있는 만성통증을 턱관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신개념 치유 요법이다.

올해로 4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혈액순환장애, 눈침침, 종아리 저림, 어깨결림, 오십견, 석회성건염, 허리와 골반통증 등 질환에 특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군 측은 설명하고 있다.

안성훈 교수는 "정위치유 과정은 턱관절 균형 운동을 통한 자세 교정으로 몸의 발란스를 잡는 치유 프로그램이다" 면서 "가벼운 통증은 1차만으로 치유가 가능하겠지만 심한 통증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치유기간 중 바른 자세를 실행에 옮기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한의약 육아 건강교실 운영

순창군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 육아 건강교실을 운영해 총명하고 튼튼한 아이 키우기를 지원한다.

한의약 육아건강교실은 순창어린이집과 팔덕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12회를 운영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영진이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진행된다.

한의학적으로 소아의 신체구조를 이해하고 경혈 점을 이용한 마사지 테크닉 지도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면역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베이비요가, 영유아마사지 국제전문지도강사와 보건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 4명이 전담해 전문성을 높였다.

최근 진행된 첫 한방육아교실에서는 설문지 작성과 함께 경혈점을 이용한 예쁜 얼굴 만들기 손, 발 마사지, 신체발달 키즈 요가가 진행돼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요즘은 아이 성장에 부쩍 관심이 큰데 한방육아교실을 이용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만족한다"면서 기대감을 표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남원서, 지역 치안협의회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6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남원 지역 치안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하여 이석보 의장, 김태수 교육지원청장, 이홍재 소방서장 등 치안협의회 위원 19명이 참석하여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근절 주요활동사항을 소개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근절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남원경찰서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향후 치안정책 추진시 아낌없는 지원·협력을 약속하였다.

황종택 남원서장은 "남원 지역 치안협의회가 여성과 노인,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기자